

박상우 장관 “안전을 토대로 첨단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강조

- 13일 자동차안전학회-美자동차의학진흥협회-대한외상학회 국제 학술대회 참석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3일 저녁 AAAM 국제 학술대회*를 찾아 자동차 안전 정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목표로 도로 및 교통안전, 의학·공학적 대응 등을 논의하는 비영리 국제조직으로, 매년 국제 학술대회 개최

* (공동 개최) 한국자동차안전학회·대한외상학회,

미국자동차의학진흥협회(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utomotive Medicine)

□ 11월 11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학술대회는 “도로 이용자 안전 제고 : 다양한 환경에서 첨단 모빌리티 미래 모색”을 주제로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다.

○ 매년 북미와 유럽 등에서 개최되었으나 아시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되어 열리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 400여 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 자동차 안전 정책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다.

□ 박 장관은 이날 자율주행차 관련 우수 논문에 대해 장관상 시상을 진행하였으며, 축사에서 “오늘날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혁신의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진정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환, 자율주행 기술의 등장 등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정부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토대로 첨단 모빌리티 혁신도 가속화 할 것”이며,

○ “한국이 첨단 모빌리티 논의의 중심지가 되도록 국내외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4. 11. 13.

국토교통부 대변인